高等敎育擴大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Ⅱ)

朴 世 逸

▷ 目 次 ◁

Ⅰ. 序
Ⅱ. 敎育市場과 勞動市場과의 關係
Ⅲ. 勞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
Ⅳ. 職種別 敎育一生産性函數
Ⅴ. 學歷인플레와 敎育需要
Ⅵ. 60年代, 70年代의 變化分析
Ⅶ. 向後 20年間의 展望과 問題點
Ⅷ. 要約 및 政策方向

Ⅵ. 60年代, 70年代의 變化分析

本章에서는 1960年代와 70年代 우리나라 學歷別 勞動市場의 變化——勞動市場의 諸指標의 變化——를 관찰함으로써 同期間中 우리나라 學歷別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狀況이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첫째, 同期間中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 둘째,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 세째, 各學歷內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관찰하려 한다. 이러한 勞動市場의 諸指標의 變化를 分析함으로써 우리는 同期間中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變化가 어떠하였고 그것이 勞動市場에 어떠한 結果를 招來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分析過程은 한편으로는 本稿가 第Ⅲ章, 第Ⅳ章에서 제시한 勞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의 妥當性을 우리의 理實속에 檢證해 보는 意義도 내포되어 있다.

1.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

가. 1960~70年間의 變化

앞의 第Ⅳ章에서 勞動市場은 需給變化에 대하여 短期내지 中期까지는 採用 및 昇進基準의 上下移動을 통한 量的調整(quantity adjustment)을 함을 밝혔다. 學歷別 勞動市場에서 이 量的調整을 나타내는 指標는 곧 職種別 學歷構成의 變化일 것이고, 이 變化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學歷別人力의 需給變化를 分析할

筆者：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本稿의 Ⅰ~Ⅴ章은 第1部로서 本誌 第4卷 第4號에 揭載되었음.

수 있다. 이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分解法(decomposition method)을 使用하기로 하자.

$$\Delta LF \equiv L_{70}-L_{60} \equiv \sum_i\sum_j E^j_{70}S^{ij}_{70}-\sum_i\sum_j E^j_{60}S^{ij}_{60}$$
$$\equiv \sum_i\sum_j [S^{ij}_{60}(E^j_{70}-E^j_{60})+(S^{ij}_{70}-S^{ij}_{60})E^j_{60}+$$
$$(S^{ij}_{70}-S^{ij}_{60})(E^j_{70}-E^j_{60})]$$

이는 1960～70年間의 總就業者數의 變化($L_{70}-L_{60}$)를 分解한 것으로 여기서

E^j_{60}, E^j_{70} : 60年과 70年 各各 jth職種의 總就業者數

S^{ij}_{60}, S^{ij}_{70} : 60年과 70年 各各 ith 敎育을 받은 사람들이 jth職種의 總就業者數에서 차지하는 比重(比率)

을 意味한다. 따라서 各項의 意味를 보면

$\sum_i\sum_j S^{ij}_{60}(E^j_{70}-E^j_{60})$은 職種別 學歷構成(比重)이 同期間中 不變인 경우의 各學歷別 勞動需要의 增加分을 意味한다. 換言하면 産業化過程이 進展됨에 따라 就業構造가 高度化 되어 上位職種의 增加가 下位職種의 增加보다 빠르게 될 것인 바 이와 같은 職種間 伸張率의 差만을 反映하여 特定職種의 增加率과 같은 速度로 特定職種內 各學歷別 人員이 增加했을 경우(이는 결국 職種別 學歷構成의 不變을 意味한다) 各學歷別 勞動需要의 增加分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는 就業構造의 變化分이라 할 수 있다.

$\sum_i\sum_j (S^{ij}_{70}-S^{ij}_{60})E^j_{60}$은 60年의 各職種別 就業者數를 基準으로 하여 그 以後 各職種別 學歷構成의 變化로 因해 생긴 就業者의 增加分만을 意味하고 $\sum_i\sum_j (S^{ij}_{70}-S^{ij}_{60})(E^j_{70}-E^j_{60})$은 一種의 相互作用項이 된다. 여기서 相互作用分의 存在를 無視하면 $L_{70}-L_{60}-\sum_i\sum_j S^{ij}_{60}(E^j_{70}-E^j_{60})$, 즉, 60年과 70年 사이의 總就業者數의 變化에서 순수한 就業構造의 變化分을 뺀 값을 우리는 職種別 學歷構成 變化分이라 부를 수 있다.

이 學歷構成變化分은 그 發生原因을 보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職種의 高級化·高度化 傾向이다. 産業化에 따른 技術革新, 職務內容의 高級化등으로 말미암아 各職種의 質的 變化가 일어나고 그 결과 同一職種일지라도 과거보다 高級人力을 더 需要하게 된다. 예컨대 같은 事務職이라 할지라도 職務處理能力의 提高를 위해 業務의 電算

〈表 1〉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變化의 分解(1960～70)

(단위 : 千名)

	〈大卒者〉			〈中高卒者〉		
	1960～70 大卒者實際增加分	就業構造變化分 (學歷構成不變時需要增加分)	學歷構成變化分 (學歷의 職種間移動分)	1960～70 中高卒者實際增加分	就業構造變化分	學歷構成變化分
專門·技術	124.0	52.5	71.5	32.5	84.5	−52.0
行政·管理	28.1	0.67	27.4	9.9	2.2	7.7
事務職	151.1	81.2	69.7	242.9	238.1	4.8
販賣職	60.9	10.5	50.4	296.4	89.3	207.1
서비스	10.1	10.2	−0.06	135.0	67.8	67.2
農業	8.6	2.3	6.3	283.4	35.7	247.7
生産職	55.2	13.7	41.5	706.0	235.2	470.8
合計	437.81	171.07	266.74	1,706.1	752.8	953.3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1960, 1970에서 計算.

化등이 소개되면 過去보다 보다 많은 高學歷者를 需要하게 되므로, 이로 因해 發生하는 職種의 學歷構成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學歷別 人力의 需給變化로 發生하는 學歷의 職種間 上下方移動(filtering up or down)을 들 수 있다. 예컨대 大卒者의 供給이 需要에 比하여 過剩하여 過去에는 高卒者의 職種이었던 곳에 大卒者가 下方移動하는 경우 即 學歷 인플레로 인한 職種의 學歷構成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 勞動力의 需給變化에 대하여 勞動市場이 量的 調整을 함으로써 發生되는 學歷構成變化를 意味한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간단히 整理하면, 一定期間의 就業者의 變化는 大別하여 就業構造의 變化分과 職種內 學歷構成의 變化分으로 나눌 수 있으며 後者는 다시 職務高度化分과 需給調節을 위한 學歷의 職種移動分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分解法은 就業者의 變化를 就業構造의 變化分과 學歷構成 變化分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以上의 分解는 不可能하다. 本稿에서는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變化를 보는 것이 主目的이므로 여기서는 學歷構成 變化分을 그대로 需給調節을 위한 職種移動分을 나타내는 代理値(first approximation)로서 使用하기로 한다.

위의 分解法을 利用하여 1960~70年間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의 變化를 分解한 結果를 〈表1〉에 整理하였다. 〈表1〉을 보면 1960~70年間 約 43.8萬名의 大卒就業者 增加分中 約 70%에 해당하는 30.3萬名이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및 事務職種에 취업할 수 있었고 나머지 30%가 販賣·서비스·農業 및 生產職

〈表 2〉 學歷別 勞動市場 新規流入勞動力(1970~80)

(단위 : 千名)

	中學		高等		2年制		4年制		大學院		高等敎育機關 計	
	卒業者	流入勞動力	卒業者	流入勞動力	卒業者	流入勞動力	卒業者	流入勞動力	卒業者	流入勞動力	卒業者	流入勞動力
1970	312.8	72.5	145.1	75.0	11.6	8.6	23.5	17.6	2.2	1.6	37.3	27.8
1971	364.2	86.4	173.9	88.2	10.7	8.1	27.2	20.3	2.0	1.6	39.9	30.0
1972	427.2	118.9	183.6	92.1	11.8	8.9	29.5	21.8	2.3	1.7	43.6	32.4
1973	467.7	115.6	205.6	104.5	13.6	10.0	28.8	21.4	2.5	1.9	44.9	33.3
1974	554.4	131.3	234.8	122.1	16.3	11.9	30.2	22.1	2.9	2.1	49.4	36.1
1975	568.6	111.5	263.3	138.1	19.7	13.9	33.6	24.6	3.5	2.6	56.8	41.1
1976	629.6	119.5	310.1	167.2	23.4	15.9	34.7	25.5	4.2	3.1	62.3	44.5
1977	651.1	116.8	367.3	204.0	26.3	17.7	37.4	27.3	4.7	3.5	68.4	48.5
1978	675.3	108.1	400.5	220.8	33.0	20.7	41.7	30.2	5.0	3.7	79.7	54.6
1979	732.0	107.7	439.8	230.4	41.2	27.4	45.4	32.3	3.9	2.8	90.5	62.5
1980	741.6	89.1	467.4	240.5	54.0	33.3	49.7	34.2	5.6	3.9	109.3	71.4
1970~75計	2,694.9	636.2	1,206.3	620.0	83.7	61.4	172.8	127.8	15.4	11.5	271.9	200.7
1976~80計	3,429.6	541.2	1,985.1	1,062.9	177.9	115.0	208.9	149.5	23.4	17.0	410.2	281.5
1970~80計	6,124.5	1,177.4	3,191.4	1,682.9	261.6	176.4	381.9	277.3	38.8	28.5	682.1	482.2
年平均增加率(%)												
1970~75	12.7	9.0	12.7	13.0	11.2	10.1	7.4	6.9	9.7	10.2	8.8	8.1
1976~80	5.6	−4.4	12.2	11.7	22.3	19.1	8.1	6.8	9.9	8.4	14.0	11.7
1970~80	9.0	2.1	12.4	12.4	16.6	14.5	7.8	6.9	9.8	9.3	11.4	9.9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流入勞動力推計는 〈附表 1〉 參照.

에 흡수되었다. 이들 下位職種에 흡수된 大卒者 13.4萬名中 이들 職種의 學歷構成 變化分인 約 9.8萬名을 소위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差로 인해 發生된 職種下方移動分으로 본다면 이는 同期間 全大卒者就業者 變化分中 約 22.4%에 달하는 셈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下位職種自體의 職務內容의 高級化傾向으로 생기는 大卒者 需要增加를 감안하지 아니했으므로 약간 過大評價되었을 것이나 그 크기는 크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도 대략 同期間中 大卒者 5~6人中 1人은 大卒者의 需要에 비해 供給이 초과되어 發生한 下位職種移動分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中高卒就業者의 경우를 보면 同期間中 約 170.6萬의 增加分中 過半數인 58%(98.9萬名)가 農業과 生產職에 흡수되었다. 또한 就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職種의 學歷構成 不變을 前提할 때)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事務職에도 1960~70年中 約 32.5萬의 中高卒就業者의 增加가 豫想되었었으나 實際增加分은 28.5萬에 그쳤고 그 反面에 販賣職, 서비스職, 農業, 生產職에는 本來 職種의 學歷構成不變을 前提할 때 約 42.8萬名의 中高卒就業者의 增加가 豫想되었으나 實際로는 142.1萬名이 增加하여 約 99.3萬名 정도가 이들 職種에 追加移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60年代의 學歷인플레傾向(過剩供給)은 大卒者의 경우에도 명백히 나타나나 그리 컸다고 할 수는 없고, 中高卒者의 경우는 비록 職種自體의 高級化로 인한 職種移動을 감안하여도 學歷인플레로 인한 職種의 下方移動이 甚大했음을 알 수 있다.

나. 1970~80年間의 變化

〈表2〉를 보면 中學卒業者는 1970~80年 全期間을 통하여 年平均 約 9%씩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의 上級學校 進學率의 提高로 인하여 勞動市場에 流入되는 中卒勞動力은 年平均 約 2%씩 밖에 增加해 오지 않은 셈이었다. 그것도 70年代 後半期에는 流入勞動力의 絶對水準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고 있는 實情이다. 요즈음 특히 地方의 中小企業에서 나타나고 있는 中卒女子의 不足現象은 70年代 後半에 中卒勞動力이 年平均 4.4%씩 감소해 오고있는 경향을 反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高等學校 卒業者의 경우를 보면 70年代 全期間을 통하여 年平均 12% 以上의 빠른 增加

〈表 3〉 職種別 就業者數의 變化 (1970, 1975, 1980)

(단위 : 千名)

	專門技術	行政管理	事 務	販 賣	서 비 스	農 業	生 產 職	計
1970	322.8	95.8	593.5	1,028.1	678.6	5,148.0	2,197.8	10,064.6
1975	417.4	102.3	844.2	1,317.1	815.8	6,190.0	2,890.7	12,577.5
1980	580.9	133.6	1,203.2	1,531.1	894.6	4,768.4	3,569.7	12,681.5
1970~75差	94.6	6.5	250.7	289.0	137.2	1,042.0	692.9	2,512.9
1975~80差	163.5	31.3	359.0	214.0	78.8	−1,421.6	679.0	104.0
1970~80差	258.1	37.8	609.7	503.0	216.0	−379.6	1,371.9	2,616.9
年平均增加率(%)								
1970~75	5.3	1.3	7.3	5.1	3.8	3.8	5.6	4.6
1975~80	6.8	5.5	7.3	3.1	1.9	−5.1	4.3	0.2
1970~80	6.1	3.4	7.3	4.1	2.8	−0.8	5.0	2.3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各年度.

推勢를 보여 왔으며 1978年 以後 大學進學率이 높아져 流入勞動力의 증가가 약간 鈍化되는 傾向도 보이기는 하나 全般的으로 70年代 高卒者勞動力의 供給은 急成長했음을 알 수 있다. 70年代 前半期에는 勞動市場에 年平均 約10萬名씩 供給되던 高卒者가 70年代 後半期에는 年平均 約21萬名씩 供給된 셈이 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大卒者의 경우 특히 4年制大學의 경우 入學定員의 非彈力的 運用으로 인하여 1970~80年間 追加供給勞動力은 年平均 —高卒者의 12.4%에 比하여 훨씬 낮은—6.9%씩밖에 伸張하지 못했다. 그러나 2年制大學의 경우는 特히 70年代 後半期부터 急成長하여 勞動市場流入量이 1975年 1.4萬名 水準에서 1980年의 3.3萬名 水準으로 확대되었으며 伸張率도 1975~80年間 年平均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大學院卒業者의 경우도 2年制大學보다 그 成長率은 낮으나 4年制大學보다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음은 特記할 사실이다.

1970~80年間 中卒者는 約118萬名, 高卒者는 約168萬名, 4年制大卒者는 約28萬名, 2年制大卒者는 約18萬名, 大學院은 約3萬名 程度의 新規勞動力이 同期間中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供給된 셈이고 이를 70年代 後半期에 局限해서 보면 中卒者는 每年 約10萬名, 高卒者는 每年 約21萬名, 2年制大卒者는 每年 約2萬名, 4年制大卒者는 每年 約3萬名, 大學院卒業者는 每年 約3~4千名씩 供給되어온 셈이다.

〈表3〉에서 勞動需要의 側面을 보면, 1970~75年間 大卒者의 傳統的 就業職種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은 約10.1萬名程度 증가하였고 事務職까지 포함하면 約35.2萬名程度가 增加한 反面, 同期間中 2年制 및 大學院을 包含한 大卒者의 勞動供給量은 〈表2〉에서 본 바와 같이 約20萬名에 그치고 있어 大卒者의 경우 약간의 供給不足現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1975~80年間을 보면 上位職種의 增加率이 빨라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은 約19.5萬名, 事務職까지 포함하면 55.5萬名의 需要增加가 있었으나 同期間中 大卒者(高等敎育機關)供給은 〈表2〉에서 본 바와 같이 約28萬名線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70年代 後半에도 大卒者供給不足은 더욱 深化되어 가는 樣相을

〈表 4〉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 變化의 分解 (1970~80)

(단위 : 千名)

	〈大卒者〉[1]			〈中高卒者〉		
	1970~80 大卒者實際增加分	就業構造變化分 (學歷構成不變時需要增加分)	學歷構成變化分 (學歷의 職種間移動分)	1970~80 中高卒者實際增加分	就業構造變化分	學歷構成變化分
專門·技術	215.8	143.4	72.4	48.8	97.3	−48.5
行政·管理	36.0	15.1	20.9	9.8	17.0	−7.2
事務職	96.3	192.3	−96.0	518.9	358.2	160.7
販賣職	31.2	36.4	−5.2	448.9	200.9	248.0
서비스	6.5	8.3	−1.8	234.0	76.4	157.3
農業	−3.4	−2.1	−1.3	326.0	−43.6	369.6
生產職	14.8	40.7	−25.9	1,239.6	547.9	691.9
計	397.2	434.1	−36.9	2,825.9	1,254.1	1,571.8

註 : 1) 大卒者는 2年制, 4年制, 大學院卒業者를 意味,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書』, 1970, 1980에서 計算.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大卒者 특히 4年制大卒者의 供給增加가 入學定員에 묶여 비교적 완만했었다는 사실과 그것도 70年代 後半에 이르러 大學院進學率이 急速히 높아지면서 4年制大卒者의 勞動市場流入率이 약간 鈍化되는 傾向을 보였다는 사실에 供給側 原因이 있었다 할 수 있다, 需要側面에서 보면 1976~78年間 우리 經濟가 年平均 GNP 成長率 約 12% 以上의 高度成長을 경험하게 됨에 따른 上位職種의 需要增大가 大卒者의 供給不足을 더욱 심각하게 하였던 것이다.

보다 자세히 이 問題를 分析하기 위하여 앞에서 提示한 分解法을 利用하여 1970~80年間의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의 變化를 分析하여 그 結果를 〈表4〉에 要約하였다.

〈表4〉를 보면 우선 大卒者의 경우 1970~80年間 大卒就業者 增加分 40萬名中에서 約87.6%에 해당하는 35萬餘名이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및 事務職에 就業할 수 있었다. 이는 〈表1〉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1960~70年間에는 大卒者就業者의 69.2%만이 위의 3個上位職種에 就業되었던 것과 對比하여 보면 1970~80年間은 需要對比 大卒者供給이 1960~70年間에 비해 완만했던 것을 보여 준다. 또한 〈表4〉에서 學歷構成變化分을 보면 上位職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에서는 大卒者比重이 크게 上昇했으나 販賣職, 서비스職, 生產職등 뿐아니라 事務職에서도 大卒者比重이 一律的으로 下落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가 곧 同期間中 大卒者의 供給이 不足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中高卒者의 경우를 보면, 1970~80年間 中高卒就業者 增加分 282.6萬名中에서 約55.4%가 生產職과 農業職에서 就業機會를 發見한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技術職과 行政管理職의 경우에는 就業構造의 變化(高度化)를 감안한 需要豫想分보다 오히려 5.6萬名程度 적은 高卒者만이 就業된 反面, 서비스職, 農業職, 生產職등에는 就業構造의 變化를 감안한 需要豫想分보다 훨씬 많은 즉, 約122萬名程度가 이들 下位職에 就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同期間동안 職種別 中高卒者의 構成比는 下位職에서는 크게 增加하고 上位職에서는 下落하였으니 이는 곧 中高卒者들의 職種의 下方移動, 換言하면 1970~80年間 中高卒者 供給이 相對的 過剩이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1970~80年間에는 中高卒者는 學歷인플레, 大卒者의 경우에는 學歷디플레 現象이 있었다고 要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職種의 學歷別構成의 變化를 中心으로 過去20年間의 學歷別 人力의 需給變化를 分析하여 왔으나 이 需給變化를 관찰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한 勞動市場指標가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라 하겠다. 이제 이에 대한 分析으로 넘어가자.

2.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

學歷別 相對賃金率은 두 가지 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學歷間의 平均賃金을 比較하는 相對賃金率, 예컨대 大卒者平均賃金 對 高卒者平均賃金이 있고, 둘째는 特定學歷의 平均賃金과 全勤勞者平均賃金과를 對比하는 相對賃金率, 예컨대 大卒者平均賃金 對 全勤勞者平均賃金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第Ⅳ章에서 勞動市場의 行態分析과 관련하여 이들 相對賃金率의 變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論的 推論을 하였다.

〈表 5〉 大卒者의 相對賃金率의 變化 (1971～81)

	4年制大卒 全勤勞者	2年制大卒 全勤勞者	全大卒[1] 全勤勞者	4年制大卒 高卒	2年制大卒 高卒	全大卒 高卒	標本事業體數	調査基準期間	標本「프레임」
1971			2.1639			1.7721	2.014	71.4.1～4.30	70年 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결과에서 標本事業體 추출
1972			2.2906			1.8470	3.549	72.4.1～4.30	71年 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결과에서 標本事業體 추출 (상용 10人 이상)
1973			2.2676			1.8723	2.847	73.4.1～4.30	上 同
1974	2.3430	1.6171	2.2137	2.0243	1.3972	1.9126	2.862	74.4.1～4.30	上 同
1975	2.5726	1.6343	2.4262	2.1439	1.3620	2.022	1.7108	75.4.1～4.30	상용 10人 이상 全事業體調査(71年事業體 勞動實態報告)
1976	2.6121	1.6523	2.4632	2.2966	1.4527	2.1656	2.726	76.3.1～3.31	71年 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결과에서 標本事業體 추출 (상용 10人 이상)
1977	2.6489	1.6945	2.4817	2.3044	1.4742	2.1590	3.347	77.3.1～3.31	76年 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결과에서 標本抽出
1978	2.5928	1.6755	2.4298	2.3097	1.4925	2.1645	3.347	78.3.1～3.31	上 同
1979	2.4857	1.5963	2.3123	2.3069	1.4759	2.1460	3.347	79.3.1～3.31	上 同
1980	2.3870	1.5291	2.2118	2.2845	1.4634	2.1169	3.865	80.3.1～3.31	78年 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결과에서 標本抽出
1981	2.3447	1.4934	2.1706	2.2496	1.4329	2.0826	3.865	81.3.1～3.31	上 同
1972～74平均			2.2573			1.8773			
1977～79平均			2.4079			2.1565			

註：全大卒은 2年制大 以上을 의미한다.
資料：勞動部,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 各年度.

첫째, 勞動需給의 變化에 대하여 價格調整이 먼저 일어난다면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學歷間 相對賃金率의 下落, 供給不足은 이의 上昇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그러나 勞動需給變化에 대하여 量的調整이 먼저 일어난다면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그들의 下位職으로의 移動, 供給不足은 上位職으로의 移動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學歷間相對賃金率의 變化는 어느 方向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一律的으로 推論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隣接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上位職으로 갈수록 크다는 一般的인 경우를 前提한다면 위의 경우, 즉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이들의 學歷間 相對賃金率을 낮출 것이다.

세째, 위와 같은 量的 調整이 前提되는 경우, 需給狀況의 變化를 보기 위해서는 特定學歷平均賃金과 全勤勞者平均賃金과를 對比하는 相對賃金率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보다 妥當하다. 즉, 供給過剩인 경우는 職種構成의 下方移動을 통하여 全勤勞者平均賃金과 對比한 相對賃金率이 반드시 下落할 것이고 供給不足의 경우에는 職種構成의 上方移動을 통하여 이 相對賃金率이 반드시 上昇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1970~80年間 이들 學歷別 相對 賃金率의 變化를 보자.

본래 勞動部의 職種別賃金實態調査는 몇차례의 標本「프레임」의 變化가 있었는데 1972~74年間과 1977~79年間은 同一標本「프레임」을 使用했으므로 1970年代를 前後期로 나누에 長期的 傾向을 比較하는 데는 이 두 期間 사이의 變化를 보는것이 合當하다 하겠다. 〈表5〉에서 이 두 기간 동안의 全大卒(2年制大 以上) / 全勤勞者平均을 보면 1972~74年間은 平均 2.26이던 것이 1977~79年間에는 2.41로 擴大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1970年代 全期間 동안 大卒者의 過少供給으로 이들의 上位職에의 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證表라 하겠다.

다음 高卒/全大卒의 相對賃金變化를 보아도 1972~74年間 平均은 1.88이던 것이 1977~79

〈表 6〉 高卒 以下者의 相對賃金率의 變化 (1971~80)

	高卒平均 / 全勤勞者	中卒平均 / 全勤勞者	國卒平均 / 全勤勞者	高卒平均 / 中卒平均	中卒平均 / 國卒平均
1 9 7 1	1.2211	0.7970	0.6544	1.5321	1.2180
1 9 7 2	1.2401	0.8116	0.6620	1.5280	1.2259
1 9 7 3	1.2111	0.7626	0.6450	1.5882	1.1823
1 9 7 4	1.1574	0.7775	0.6422	1.4886	1.2107
1 9 7 5	1.1999	0.7430	0.6285	1.6149	1.1822
1 9 7 6	1.1374	0.7257	0.6141	1.5673	1.1817
1 9 7 7	1.1495	0.7306	0.6544	1.5734	1.1163
1 9 7 8	1.1226	0.7365	0.6492	1.5242	1.1345
1 9 7 9	1.0775	0.7446	0.6620	1.4470	1.1249
1 9 8 0	1.0449	0.7350[1)]	0.6730[1)]	1.4205[1)]	1.0929[1)]
1972 ~ 74	1.2028	0.7839	0.6497	1.5349	1.2063
1977 ~ 79	1.1165	0.7372	0.6552	1.5149	1.1252

註 : 1) 1980年 職種別賃金調査테이프에서 추출.
資料 : 勞動部,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 各年度.

年間에는 2.16으로 擴大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隣接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上位職으로 갈수록 큰 것이 一般的인 경우이므로 이를 前提한다면 高卒/全大卒의 相對賃金의 擴大는 곧 同期間中 大卒者의 相對的 過少供給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表6〉에서 高卒 以下者의 相對賃金의 變化를 보면

첫째, 高卒/全勤勞者나 中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1970年代 前後半을 비교할 때 高卒者가 1972～74年間 平均 1,203에서 1977～79年間 平均 1,117로 下落하였고 中卒者도 같은 期間中 0.78에서 0.74로 下落하였다. 이는 中高卒者의 供給過剩으로 職種構成의 下方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指標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全大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이 同期間中 上昇한 것과는 完全 對照가 된다.

둘째, 197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면서 高卒者/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급속히 下落하여 1975年 1.20에서 1980年 1.04로 떨어져 過多供給으로 인한 下位職 移動이 격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中卒/全勤勞者의 경우는 1970年代 前半期에는 下落하다가 1976年을 경계로 反轉하여 1976年의 0.726에서 1979年의 0.735로 점차 上昇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中卒者의 進學率提高로 앞의 〈表2〉에서 보았듯이 中卒者勞動市場流入量이 1970年代 後半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減少하고 있음이 賃金構造에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세째, 國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의 경우는 1970年代 全期間을 통하여 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약간 上昇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新規國卒者의 職種構成은 下方移動이 있었겠지만 中學에의 進學率提高로 勞動市場에 나오는 新規國卒者自體가 激減하였을 것이고 이미 就業中인 國卒者는 年齡과 勤續年數가 높아감에 따른 賃金引上效果가 커서 이 두가지 效果가 相互 反對方向으로 作用했을 것이므로 國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큰 變化가 없었다 하겠다.

네째, 高卒/中卒 및 中卒/國卒의 相對賃金率은 1972～74年間 平均 1.535, 1.206에서 1977～79年間 平均 1.515, 1.125로 各各 隔差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는 앞의 〈表5〉에서 全大卒/高卒의 差가 擴大되어 온 것과는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高卒의 持續的 供給增加와 中卒의 특히 1970年代 後半期의 供給減少가 中卒/高卒의 隔差縮少의 第1次的 原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1977年 以後 中卒/高卒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오고 있음을 볼 때 더욱 명백하다. 또한 中卒/國卒의 相對賃金率이 縮小되어 오고 있는 理由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勞動市場에 새로 들어오는 新規國卒者의 減少와 이미 就業中인 國卒者의 中高齡化에 따른 賃金上昇效果 때문일 것이다.

3.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變化를 관찰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指標는 各學歷內 賃金不平等度의 變化이다. 앞의 第Ⅳ章에서 예컨대 特定學歷者의 供給不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採用基準, 昇進基準의 緩和로 上位職으로 移動을 하게 되고, 이러한 職種의 上方移動은 一般的으로 「로그 노멀」(log normal)形態를 가지는 賃金分布에서 集中度(density)가 낮은 部分으로의 移動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 特定學歷內 賃金分布는 보다 不平等한 方向으로 움직일 것

이라고 推論하였다. 換言하면 一般的으로 上位職種으로 갈수록 職種內 賃金不平等度는 높아지기 때문에(行政管理職內 賃金不平等度는 生産職內 그것보다 높다) 特定學歷者들의 職種의 上方移動은 그들의 賃金分布를 보다 不平等하게 한다. 반면에 같은 論理로 特定學歷者들의 過多供給은 下位職에의 移動을 激化시켜 學歷內 賃金分布는 보다 平等해지게 된다.

그러면 1971~80年間 우리나라의 경우 이 學歷內 賃金分布에는 어떠한 變化가 있어 왔는가를 分析하여 보자. 本硏究에서는 1971年과 1980年 勞動部의 職種別賃金實態調査테이프에서 無作爲抽出하여 1971年의 29,871名과 1980年의 25,705名의 學歷別 賃金分布度를 구하여 보았다. 이때 구한 지표는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와 log賃金의 標準偏差이다.

〈表7〉을 보면 첫째, 全般的 不平等度는 減少의 推勢를 보이고 있다. 1971~80年間 log 標準偏差는 0.743에서 0.714로, 變異係數는 0.8283에서 0.8041로 줄어오고 있다. 이는 産業化過程이 進行됨에 따라 격렬해지는 勞動移動을 통하여 勞動市場에서의 非競爭그룹의 漸進的 解體, 能力과 業務內容間의 不一致(mismatch)의 漸進的 解消, 賃金管理 및 賃金體系의 合理化 등으로 開發初期에 生産性 差를 反映하지 못했던 賃金隔差部分이 점차 縮小되어 가는 過程으로 解釋할 수 있다.

둘째, 男子의 賃金不平等度가 女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女子가 男子보다 下位職種에 보다 많이 集中되어 있기 때문이고, 下位職일수록 上位職보다 賃金不平等는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女子의 경우가 男子의 경우보다 1971~80年間 賃金不平等度의 縮小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同期間中 女子의 下位職 移動이 보다 컸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세째, 大卒者의 경우는 期待했던 대로 1971~80年間 賃金不平等度가 增大한 것으로 나타났다. 變異係數는 0.5523에서 0.5909로, log 標準偏差는 0.517에서 0.608로 增加하였다. 또한 그 크기를 보면 中下位 賃金階層의 變化를 보다 잘 反映하는 log 標準偏差가 全般的 傾向을 보다 잘 나타내는 變異係數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增大하였다. 이는 곧 大卒者中 下位職 從事者의 中位職으로의 上方移動이 中位職에서 上位職으로의 移動보다 빨랐던 것으로 解

〈表 7〉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 (1971, 1980)

	1971			1980		
	log s.d.	coefficient of variation	標本數(名)	log s.d.	coefficient of variation	標本數(名)
國卒	0.685	0.7493	1,3940	0.593	0.5948	6,102
中卒	0.627	0.7179	8,876	0.607	0.6043	8,864
高卒	0.598	0.6388	5,931	0.613	0.5971	7,641
大卒	0.517	0.5523	3,170	0.608	0.5909	3,098
男	0.670	0.7031	19,234	0.651	0.6984	15,734
女	0.537	0.7444	10,137	0.514	0.5418	9,971
全體	0.743	0.8283	29,871	0.714	0.8041	25,705

註 : log s.d.는 log 賃金의 標準偏差임.
coefficient of variation은 標準偏差/平均값임.
資料 : 勞動部, 各年度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테이프에서 추출.

釋할 수 있다.

네째, 變異係數를 보면 大卒者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高卒, 中卒, 國卒의 경우는 모두 同期間中 賃金不平等度가 완화·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期待한 대로 大卒者는 上方移動, 高卒 以下者는 下方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 變異係數의 縮小幅을 보면 高卒에서 中卒, 國卒로 내려갈수록 職種의 下方移動이 격렬했었다는 사실과 下位職일수록 賃金隔差가 작다는 사실을 모두 反映한다 하겠다. log 標準偏差를 보아도 대체로 豫測한 대로 나타났다. 즉, 大卒者의 경우의 擴大와 中卒, 國卒者의 경우의 縮小이다. 그러나 高卒者의 log 標準偏差가 同期間中 약간 增加한 것은 우리의 理論的 豫測과 實態値 變化와의 사이의 「갭」(gap)을 의미한다. 高卒者를 다시 男女로 나누어 1971~80年間의 變化를 보았다. 高卒男은 log 標準偏差가 0.584에서 0.573으로 期待대로 縮小하였고, 高卒女도 0.539에서 0.532로 期待한 바와 같이 縮小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高卒男과 女는 各各 賃金不平等度가 축소되었는데 왜 男과 女를 합한 高卒者 全體의 不平等度는 擴大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아마도 이는 高卒의 경우 男女間 賃金隔差가 同期間中 보다 擴大되어 나타난 現象이 아닌가 하는 暫定的 說明이 可能하다고 본다. 보다 具體的인 說明을 위해서는 別度의 硏究가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表7〉의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보아도 1970~80年間 大卒者의 過少供給과 高卒 以下者의 過多供給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바 이는 앞의 第Ⅲ章과 第Ⅳ章에서 提示한 勞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이 무리없이 우리나라에 適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Ⅶ. 向後 20年間의 展望과 問題點

本章에서는 1980年의 敎育改革後 急增이 豫想되는 高等敎育機關修了者의 문제를 中心으로 1980年代의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狀況을 展望하고, 이와 關聯되어 發生할 社會經濟的問題들을 分析하려 한다.

1. 1981~91年間의 學歷別 人力의 需給展望

1980年의 敎育改革으로 1980年代에는 大卒者(2年制 以上)의 大幅的 供給增加가 豫想되는바, 1980年의 敎育改革案과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1982~86)의 文敎部門實行計劃을 토대로 各學歷別 卒業豫定者와 卒業者中 勞動市場에 나와 求職活動을 할 新規流入勞動力을 1981~91年까지 推定한 結果는 〈表8〉과 같다. 名學歷別 卒業者推定値에서 上級學校進學者 推定値와 經濟活動參加率등을 감안하여 當該年度에 勞動市場에 새로 나올 新規流入勞動力을 계산하였는 바, 자세한 推定方法은 〈附表1〉을 參照하면 될 것이다.

〈表8〉을 보면 中學校를 卒業하고 高等學校에 進學하지 않고 곧바로 勞動市場에 流入될 人力은 1970~80年間보다 1981~91年間에 큰 減少가 豫想된다. 1970~80年間 實績値는 約118萬名이었으나 1981~91年間 新規流入勞動力의 豫想値는 約64萬名으로 推計되었다. 減少의 주된 原因은 高等學校進學率이 1980年代 後半에는 約90%線을 넘을 것이 豫想되기 때

문이다.

反面에 高等學校卒業者中 勞動市場新規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에는 約168萬名이었으나 1981~91年間에는 大幅 擴大되어 290萬名線이 될 것이 豫想된다. 이는 大學定員의 擴大로 上級學校進學率이 높아지기는 하나, 中學에서 高校에의 進學이 增加하는 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高等教育機關의 경우를 보면 2年制大學은 1970~80年間의 17.6萬名에서 1981~91年間 約90萬名, 4年制大學은 27.7萬名에서 約100萬名, 大學院은 3萬名에서 約21萬名線으로 各各 大幅的인 增加가 豫想된다. 이는 2年制의 경우 約5.1배, 4年制의 경우는 約3.6배, 大學院은 約7배의 急增을 意味한다. 주로 1980年의 教育改革을 通한 高等教育機關定員의 대대적인 擴大때문이다.

물론 비록 高等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擴大되었다 하더라도 高等教育에 대한 需要가 많지 않다면, 高等教育修了者의 急增은 豫想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大卒者와 高卒者의 生涯賃金의 隔差가 커서 大學教育의 私的 投資收益率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1980年 基準 4年制 男은 12.1%, 4年制 女는 8.0%) 高等教育 기회의 擴大는 곧 高等教育履修者의 擴大로 나타날 것이다[1]. 즉,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의 경우는 곧 供給이 需要를 決定한다 할 수 있다.

高等教育機關 全體의 卒業者(2年制 以上 大學院까지)中 勞動市場에 新規流入되는 勞動力은 1970~80年間이 約48.2萬名이던 것이 1981~91年間에는 約211.1萬名으로 約4.4倍의 增加가 豫想되며 이는 過去에는 單純平均하여 每年 約4~5萬名의 新規勞動力이 供給되던 것이 1980年代 前半期에는 每年 約15萬名, 後半期에는 每年 約25萬名정도의 大卒者가 新規流

〈表 8〉 學歷別 卒業者 및 新規流入勞動力推定(1981~91)

(단위 : 千名)

	中學		高等		2年制		4年制		大學院		高等教育機關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1981	773.4	80.9	497.0	227.5	64.6	43.2	55.8	37.8	7.9	1.2	128.3	87.2
1982	822.3	79.6	548.5	237.2	90.0	60.1	70.5	47.6	12.0	9.4	172.5	117.1
1983	813.8	72.5	579.5	248.0	103.2	69.0	98.6	65.8	16.0	12.6	217.8	147.4
1984	872.8	71.0	618.9	265.7	111.6	74.6	115.9	76.5	20.0	15.7	247.5	166.8
1985	849.5	62.5	668.6	288.3	119.6	79.9	142.9	93.1	23.0	18.1	285.5	191.1
1986	871.4	57.4	669.2	275.1	127.0	84.9	150.8	97.1	26.0	20.4	303.8	202.4
1987	883.5	54.9	738.1	294.1	136.1	91.0	161.7	102.8	29.0	22.8	326.8	216.6
1988	831.3	48.3	755.7	291.7	140.1	93.6	171.7	107.9	31.0	24.3	342.8	225.8
1989	813.2	44.1	764.6	282.7	145.6	97.3	184.7	116.0	33.0	25.9	363.3	239.2
1990	764.8	38.6	765.0	268.6	150.6	100.6	199.7	125.5	35.0	27.5	385.3	253.6
1991	730.6	34.0	724.7	225.3	155.6	104.2	207.8	130.5	37.0	29.1	400.4	263.8
1981~91計 (推定値)	9,026.6	643.8	7,329.6	2,904.2	1,344.6	898.2	1,560.1	1,000.6	269.9	211.9	3,174.0	2,110.7
1970~80計 (實績値)	6,124.5	1,177.4	3,191.4	1,682.9	261.6	176.4	381.9	277.3	38.8	28.5	682.1	482.2

註 : 卒業豫定者 및 新規流入勞動力推計方法은 〈附表 1〉 參照.

1) 朴世逸(1982)參照.

入됨을 意味한다.

위와 같은 供給側變化가 豫想되는 1981～91年間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需要側變化를 감안한 후 豫想되는 各學歷別 需給展望, 즉 需給差는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91年 우리나라 就業者數 및 그의 職種別構成에 대한 推定値가 必要한 바, 이는 旣存의 KDI 朴恒求 博士의 硏究結果를 利用하였다[2]. 이 資料에 의하면 1991年 豫想總就業者數는 1,873.3萬名으로 이는 1981～91年間 約 605.1萬名 정도의 就業者 純增加를 意味한다. 이 總就業者의 增加豫想分을 勞動需要增加로 보고, 여기에서 各學歷別 需要純增加豫想分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方法을 使用하였다. 第1方法은 各職種別 學歷構成이 同期間中 變化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1991年 各職種別 就業者豫側値에 1980年 人口센서스에 나타난 各職種別 學歷構成比를 代入하여 同期間中 各學歷別 需要純增加豫想分을 구하는 方法이다(推定方法 Ⅰ). 그러나 이 方法은 低學歷者의 槪略的 需要變化를 보는 데는 意味가 있으나, 高學歷者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産業化와 技術革新이 進展됨에 따라 職務內容 自體가 高度化되므로 同一職種에서도 過去보다 高學歷者를 需要하게 되는 勞動需要側 變化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2方法은 職種別學歷構成이 不變이라는 假定을 修正하여 過去 1966年부터 1980年까지 職種別 學歷構成變化의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1991年에 職務의 高度化로 인해 豫想되는 職種別 學歷構成比를 推定, 이를 1991年 各職種別 就業者豫側値에 代入하여 1981～91年間의 學歷別需要純增加分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 方法은 2年制以上의 高等敎育機關修了者의 경우에만 適用해 보았다.

다음은 供給側面을 보면 〈表8〉의 新規流入勞動力에는 이미 生殘率이 감안되어 있다. 따라서 1980年 現在의 旣存各學歷別 就業者「스톡」(stock)들의 生殘率만을 추가로 고려하여 〈表8〉의 1981～91年間의 流入豫想勞動力에서 1980年 現在 旣存學歷別人力의 1981～91年間의 豫想脫落値(1－生殘率)만을 공제하여 1981～91年間 供給純增加豫想分을 求하였다. 이렇게 구한 結果가 〈表9〉에 나타나 있다.

〈表9〉를 보면 1981～91年間의 學歷別 勞動의 需給狀況을 豫測할 수 있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職種의 學歷別構成不變을 前提했을 때, 즉 同期間中 就業構造의 高度化만을 감안하고 職務의 高級化는 감안하지 않는다면, 中卒者의 경우 需要純增加分은 150萬名인데 반하여 供給純增加分은 60.5萬名에 不過하여 약 89.5萬名 정도의 供給不足이 豫想된다.

둘째, 高卒者의 경우는 위와같은 가정아래 需要純增加는 207.6萬 정도인데 반해 供給純增加는 286.4萬名이므로 約78.8萬 정도의 供

〈表 9〉 敎育程度別 勞動力의 需給豫想
(1981～91) (단위 : 千名)

	1981～91年間 供給純增加豫想分	1981～91年間 需要純增加豫想分	豫想需給差
中學	604.9	1,500.3	－895.4
高等學校	2,863.5	2,075.5	788.0
高等敎育機關(2年制大 以上)	2,095.8	1,513.9	581.9

註 : 1) 中學校와 高等學校의 需要純增加豫想分은 職種內學歷構成不變을 가정한 推定方法 Ⅰ에 의한 結果이고 高等敎育機關의 需要純增加豫想分은 職務의 高級化로 인한 學歷構成變化를 감안한 後의 結果임(推定方法 Ⅱ).
2) 具體的 推定方法은 〈附表 2〉 參照.

2) 朴恒求(1981)參照.

給超過가 豫想된다.

세째, 高等敎育機關卒業者의 경우, 需要推計에 있어서 앞의 中高卒者의 경우와는 달리, 技術革新에 따른 業務內容의 多樣化·高級化로 因한 職種別學歷比重의 上昇分이 반드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業務의 高級化로 인한 需要增大分이 中高卒者의 경우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職種의 學歷構成不變을 前提하고도 需給狀況을 豫測함에 큰 無理는 없겠으나 大卒者의 경우는 이러한 業務高級化로 인한 需要增大分이 작지 않으리라 思料되기 때문이다. 이 點을 감안한 後(推定方法Ⅱ)의 大卒者(2年制 以上)의 需給豫想을 보면 需要純增加는 1981~91年間 約151.4萬名인데, 供給純增加는 約209.6萬名이어서, 約58.2萬名의 供給超過가 豫想된다[3].

네째, 1981~91年間 超過供給이 豫想되는 58.2萬名의 高等敎育機關卒業者의 一部는 自發的이든 非自發的이든 失業을 하게 되나, 大部分은 從前의 高卒者職種으로 下方移動하여 就業機會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소위 大卒者의 「블루 칼라」化 혹은 「그레이 칼라」化 경향을 結果할 것이다. 이 下位職移動量은 1980年代 前半期에는 每年 平均 約4~5萬名, 後半期에는 6~7萬名의 수준이 되리라 보이고, 2年制大卒者의 高卒者 職種에의 移動이 우선하리라 豫想된다.

다섯째, 1981~91年間 中卒者의 供給不足分과 高卒者의 供給超過分의 크기를 볼 때, 高卒者가 종래 中卒者의 主職種이었던 下位生産職과 下位販賣職, 下位서비스職 및 農業에 大量 下方移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高

〈表 10〉 就業者의 職種別, 學歷別 構成比의 韓日間 比較

	韓國		日本			
	1980 (實績値)	1991 (推定値)	1960[2]	1970[2]	1975[3]	1979[4]
專門技術	4.6	7.6	4.9	6.6	7.6	8.3
行政管理	1.1	1.9	2.3	3.9	4.4	4.4
事務職	9.5	13.2	10.4	14.0	16.8	17.1
販賣	12.1	14.4	10.6	12.0	13.4	13.6
서비스	7.1	9.5	6.5	6.5	8.4	8.9
農業	37.6	20.0	32.6	19.5	12.6	10.9
生産職	29.7	33.3	32.7	37.5	36.7	36.7
計	100	100	100	100	100	100
大卒者[1]/全就業者	7.2	16.5	6.7	10.8	14.5	18.0
高卒者/全就業者	21.2	29.8	23.3	33.6	38.2	42.7

註 : 1) 2年制以上 包含. 中退者 除外
2) 1960, 70年 : 日本勞働省, 『勞動白書』 昭和51年版.
3) 1975 : 日本通商産業省 『80年度の産業構造の展望と課題』.
4) 1979 : 『日本統計年鑑』 1982.

資料 : 1980年은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1991年 推定値는 朴烜求博士 推計値임.

3) 大卒者의 경우 職務의 學歷構成不變을 前提하면, 同期間中 純需要豫想値는 117.8萬名, 純供給豫想値는 209.6萬名으로 나타났다. 즉, 約91.8萬名(2年制大 : 70.1萬名, 4年制 以上 : 21.7萬名)의 供給超過를 意味한다. 이를 本文에서의 純需要豫想値 151.4萬名과 比較하면 결국 33.6萬名 정도의 大卒者가 業務高級化로 인한 職種의 大卒者比重增加로 消化가 豫想됨을 意味한다.

等敎育履修者가 高卒者의 主職種이었던 下位事務職, 販賣職, 서비스職, 上位生産職 등에 下方移動하는 것은 이러한 職種에서의 企業主의 高學歷選好度가 대단히 높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高等敎育履修者 特히 2年制履修者의 失業率의 增加가 豫想된다[4].

2. 中途脫落者의 勞動市場

1980年의 高等敎育改革과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의 文敎部門計劃을 보면 4年制大學의 경우 卒業定員의 130%를 入學시켜 卒業까지 30%를 탈락시키고 專門大의 경우는 卒業定員의 115%를 入學시켜 超過分 15%를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는 入學者數를 基準하여 보면 4年制大學의 경우는 入學者의 約23.1%, 專門大의 경우는 入學者의 約13%가 學業中 中途脫落되어야 하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과거에는 自發的인 自然脫落者는 있었다. 1975~81年間 4年制大學의 경우 自然脫落率은 年平均 入學者의 約13.1%정도의 水準이었고, 專門大의 경우는 約14.9%였다. 따라서 卒業定員制가 實施되어도 專門大의 경우는 별 무리가 없으나 4年制의 경우는 脫落되어야 할 23.1%中 13.1%정도는 自然脫落者(voluntary drop out)가 차지한다고 보아도 入學者의 10%는 强制脫落되어야 함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强制脫落될 사람들의 規模는 어떠한가. 4年制大學의 경우를 1981年의 實績値와 第5次經濟開發計劃 敎育部門 實行計劃에 나타난 卒業定員計劃을 基礎로 하여 보면 1981~86年間 總入學者數는 約131.8萬名이고 이들

〈表 11〉 大學中退者와 卒業者의 就業職種比較 (1980)

(단위 : 千名)

	高卒者	構成比(%)	4年制大中退者	構成比(%)	4年制大卒業者	構成比(%)
專門技術	125.7	(4.8)	13.9	(9.9)	305.4	(36.8)
行政管理	345.5	(1.3)	6.6	(4.7)	71.5	(8.6)
事務職	703.5	(26.7)	42.9	(30.7)	253.8	(30.6)
販賣職	448.7	(17.0)	29.1	(20.9)	93.6	(11.3)
서비스	209.2	(7.9)	12.8	(9.2)	26.9	(3.2)
農業	309.3	(11.7)	8.2	(5.9)	17.7	(2.1)
生産職	806.1	(30.6)	26.2	(18.8)	60.9	(7.3)
計	2,637.1	100	139.7	100	829.8	100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1980.

4) 〈表10〉을 보면 우리나라 總就業者中 大卒者가 차지하는 比重이 1980年 7.2%에서 1991年 16.5%로 增加할 것이 豫想되는 바, 이는 日本의 1977~78年의 水準이라 할 수 있다.

反面, 需要側 事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就業構造를 對比하면, 1991年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就業構造와 日本의 1970年 직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農業從事者가 全就業者의 約20% 水準을 점하고 있으며, 專門技術·行政管理·事務職 등의 上位職種從事者의 構成比가 日本의 1970年에 約24.5% 우리나라의 1991年에 約22.7%로 나타나 勞動力 需要構造面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就業構造의 高度化라는 勞動需要構造側面에서 우리나라의 1991年은 日本은 1970年 직전과 유사한 반면, 總就業者中 大卒者比重은 우리나라 1991年 豫想値가 日本의 1977~78年과 유사하다는 점은 日本에서는 高卒者가 就業하는 職種에 우리는 앞으로 大卒者가 就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에서도 1970年代 後半以來 高學歷化에 따른 勞動問題, 예컨대 大卒者의 「블루 칼라」化 등이 심각히 論議되어오고 있는 바(1976年 日本勞動省, 『勞動白書』 參照)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 日本의 70年代보다 더욱 심각한 高學歷化의 下位職務勤問題에 當面하게 될 것이다.

이 1985~90年間 年次的으로 卒業하게되는바, 1985~90年間 卒業定員制에 묶인 卒業豫定者는 約101.4萬名이므로, 約30.4萬名이 中途脫落을 하게 된다.

이 中途脫落시켜야할 30.4萬名中 17.3萬名은 自然脫落으로 해결한다고 보아도 强制脫落은 約13.1萬名線이 될 것이다. 卒業定員制로 인하여 自然脫落이던, 强制脫落이던 脫落이 豫想되는 規模는 1981~86年間 入學者中 4年制大學의 경우 約30.4萬名, 專門大의 경우 約10.6萬名 合計 約41萬名이 中途脫落者로서 勞動市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中退者·中途脫落者들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어떠한 待遇를 받는가. 이 점을 就業構造面과 賃金構造面으로 나누어 관찰하기로 한다.

우선 雇傭面 즉, 就業構造面을 보면 1980年現在 人口센서스資料에 의하면 〈表11〉과 같다. 上位職이라 할 수 있는 專門技術 및 行政管理職을 보면 4年制大卒者의 경우는 約45.4%가 이 職種에 就業하고 있는 反面, 4年制大學中退者는 14.6%만이 이들 上位職에 就業한 것으로 나타났다. 下位職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農業·生產職에도 4年制大學卒業者는 12.6%만이 이 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反面, 中退者의 경우는 33.9%가 이들 職種就業者로 나타났다. 물론 大學中退者들이 高卒者보다 雇傭面에서 대우를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大卒者 對比 不利益이 高卒者 對比 利益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雇傭面에서의 差等待遇는 곧所得面에서의 隔差로 연결된다. 〈表12〉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高卒者를 100으로 보았을 때 大學中退者는 平均 118, 大卒者는 169로 나타난다. 즉, 大學中退者는 大卒者보다 高卒者에 가까운 平均賃金을 받고 있다. 이는 美國의 경우(白人) 大卒者와 高卒者의 賃金隔差의 약37.8%정도를 大學中退者가 高卒者보다 많이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大卒者와 高卒者 賃金隔差의 約26.5%만을 大學中退者가 받고 있

〈表 12〉 大學中退者와 卒業者의 賃金隔差比較

	高 卒 者	大中退者	大 卒 者
韓國(1974) 平均(원)	38,492(100)	45,508(118)	64,966(169)
專門技術	49,315(100)	49,512(100)	63,937(132)
行政管理	70,432(100)	72,558(103)	105,850(150)
事務	40,399(100)	46,050(114)	66,153(164)
販賣	31,565(100)	40,455(128)	47,657(151)
서비스	33,892(100)	39,914(118)	47,047(139)
生產	36,134(100)	43,524(120)	58,579(162)
美國(1973)[1] 平均($)			
白人	231(100)	265(115)	321(139)
非白人	178(100)	209(117)	241(135)

註 : 1)35~44歲 常用工의 週給
高卒은 12年敎育받은者, 中退는 13~15年, 大卒은 16年敎育받은者로 區分.

資料 : 韓國資料은 經濟企劃院 1974年 特別雇用統計調査데이프에서 추출하였으며 非농가부문의 被고용자 男子의 平均賃金水準임. 美國資料는 週 35시간 以上 일하는 就業者中 男子의 平均賃金水準임. Chiswick, B.R. and June A. O'Neil, 『Human Resources and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1977), Table 1-4.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이 中退者에 보다 不利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記할 점은 위와같이 中退者가 卒業者에 비해 勞動市場에서 받는 不利한 差等待遇는 專門技術, 行政管理, 事務職 등의 上位職으로 올라갈수록 크고 下位職일수록 낮다는 事實이다. 〈表12〉를 보면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경우 高卒者賃金과 大卒中退者賃金의 差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卒業狀이 가지는 「스크리인」機能이 上位職일수록 强하여 學歷의 差가 그대로 賃金差로 反映되나 生産職, 販賣職, 서비스職 등의 경우에는 資格證으로서의 學歷보다는 勤勞者의 勞動生産性 自體가 보다 중요한 賃金水準決定要因임을 알 수 있는 예라 하겠다.

여하튼 中退者가 卒業者보다 雇傭機會面에서나 所得面에서 매우 不利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慣行이라면 個人의 次元을 떠나 社會的 觀點에서 볼 때, 强制脫落의 制度化로 인해 發生될 經濟的 損失은 얼마나 되는가를 槪算하여 보자.

〈表13〉를 보면, 社會的 現在 消費選好度(social internal rate of time preference)[5]를 약간 낮게 10%로 잡아도 中途脫落者 1人의 배출로 結果되는 社會的 損失은 1980年 基準價格으로 約152萬원이 된다. 1981~86年間 4年制大入學者中 中途脫落豫定者數가 約30.4萬名이므로 總 損失은 80年價格으로 約4,621억원이나 된다. 이 中 自然脫落分을 빼고 强制脫落分만을 본다해도 豫定者가 約13.1萬名이므로 約1,991억원의 社會的 費用(social cost)이 發生하는 셈이 된다.

만일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를 15%水準으로 잡는다면 中途脫落者 1人의 배출로 結果되는 社會的 損失은 1980年 價格으로 約282萬원, 따라서 4年制大學 中途脫落豫定者數를 감안한 社會的 總損失分은 約8,573억원에 이르고, 自然脫落分을 빼고 卒業定員制로 因해 새로이 發生하는 强制脫落分만을 보아도 約3,694억원의 社會的 損失이 發生하는 셈이다.

따라서 大學過程의 中途脫落者가 增大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政治·社會的 費用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 經濟的 費用의 側面만을 槪算하여 보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큰 損失이 發生한다. 따라서 現 卒業定員制의 導入으로 强制되는 中途脫落者의 문제는 政策的再考가 要請된다 하겠다. 물론 위와 같은 社會的收益·費用分析은 賃金隔差가 生産性隔差를 反映한다는 가정, 즉 賃金隔差가 社會的으로는 GNP 增大에 대한 기여의 差로 볼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의 論議라는 점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表 13〉 大學(4年制) 中途脫落者 1人의 社會的 收益·費用分析(1980年 基準)

(단위 : 萬원)

割引率	收 益	費 用	差
2%	1,494	521	973
5%	772	499	273
10%	314	466	△152
15%	157	439	△282

註 : 費用 : 直接費用+機會費用 : 4年制 卒業者의 50% 적용.
收益 : 大卒과 高卒의 生涯賃金差의 26.5% 적용. 〈表 12〉 참조.
'△'는 마이너스를 의미.
大卒, 高卒의 生涯賃金과 學歷別 敎育投資費用資料는 朴世逸(1982) 參照.

5) 우리나라의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社會的 割引率)는 具本英博士 推計에 의하면 年間 12~14%, 洪元卓 博士는 14~15%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具本英(1981), Wontack Hong(1979) 參照.

3. 高學歷者의 海外流出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0年代에 豫想되는 高學歷者의 大幅的 增加는 必然的으로 勞動力의 地域間 移動, 즉 離農向都現象을 촉진시킬 것이고 동시에 소위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고 表現되는 高學歷者의 海外移住問題를 深刻하게 만들 것이다.

本稿에서는 離農문제에 대한 論議는 略하고 高學歷者와 高級人力의 海外流出문제에 局限하여 보기로 한다.

高學歷者·專門技術職從事者의 海外流出, 特히 後進國에서 先進國에로의 移住問題는 經濟開發理論家나 勞動經濟學者의 많은 注目을 끌어왔다. 海外移住의 경우 高學歷者일수록 移動性向이 높은 것은 이미 經驗的으로나 實證的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高學歷者일수록 移住로 인하여 발생하는 期待生涯賃金의 差(現地와 海外間)가 크고 또한 海外勞動市場情報에도 밝으며, 移住後의 雇傭機會도 넓은 반면, 高學歷일수록 海外移住過程 내지 定着過程에서 발생하는 非經濟的, 특히 心理的 費用(psychic cost)이 낮기 때문에 移動性向이 높다 할 수 있다. 過去 10年間(1971~80) 海外移住者의 公式 集計는 約33萬7千名線에 달하고 이들의 學歷構成을 보면 高學歷者의 集中度가 非移住者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80年 現在 우리나라 經濟活動人口에서 男子의 경우 約12.2%, 女子의 경우 約3.4%가 大卒者임에 반하여, 1972~76年間 移住者를 標本調査한 결과를 보면 海外移移住者의 大卒 構成比는 男子가 約34.9%, 女子가 約20.5%로 높게 나오고 있다[6]. 또 男子 移住者의 約70%以上이 高卒以上의 學歷者이고 女子 移住者의 約44%以上이 高卒以上者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高級人力의 海外流出은 우선 그들에 대한 社會的 敎育投資分의 流失을 招來한다 할 수 있는 바 그 規模를 槪算하여 보기로 한다. 예컨대 男子 大卒者 1人을 敎育시키기 위하여 國民學校부터 大學까지 드는 公私敎育費의 總額은 1980年 현재가격으로 約1,137萬원이고, 이 敎育期間中 生産活動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機會費用, 즉GNP損失分이 約793萬원이므로 이 들을 합계한 社會的 敎育投資 總費用은 約1,930萬원이 된다[7].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男子高卒者 1人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社會的 總費用은 約856萬원, 男子 中卒者 1人의 경우는 約495萬원이 된다. 1972~76年間 移住者의 標本調査 結果의 平均値를 적용하여 1971~80年間 海外移住의 學歷構成을 구한 결과에 各學歷別 1人當 社會的 敎育投資의 總費用을 곱하면 海外移住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략의 社會的 敎育投資의 流失分을 구할 수 있다. 일단 中卒 以上者에만 限定하여 이를 계산해 보면 1971~80年間 1980年 不變價格으로 約20兆6,535億원의 社會的 敎育投資가 流失된 것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海外移住者들의 韓國에의 送金도 결코 적은 金額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반면 正式 海外移住가 아니라 留學·硏究·商事등의 관계로 出國後 永住하는 소위 現地移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社會的 敎育投資의 損失도 이들의 敎育水準이 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크기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1980年代에 大卒者의 大幅的인 供給

6) 洪思媛·金思憲(1979) 참조.
7) 朴世逸(1982) 참조.

增加가 예상되고 韓國의 勞動市場이 이를 充分히 吸收하기 어려워 大卒者의 下位職 移動이나 失業問題가 一般化한다면 이는 分明 海外頭腦流出을 더욱 促進할 것이 틀림없으며, 1981年에 斷行한 일련의 海外旅行 自由化措置는 이러한 趨勢를 더욱 촉진시키리라 思料된다. 이러한 傾向은 앞에서 본 社會的 敎育投資費用의 流失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派生效果를 招來할지 모른다.

첫째, 高等敎育에 대한 私的 需要를 더욱 增加시킨다. 換言하면 海外移住를 前提로 한 敎育熱의 上昇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高學歷者일 수록 海外移住 및 就業이 容易하고 또한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生涯所得의 差가 크다면 이는 분명히 高等敎育에 대한 私的 需要를 높여 社會的 觀點에서 볼 때 敎育에 대한 過多投資(overinvestment)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高級人力 특히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海外流出은 현재 우리나라 人力問題중의 하나인, 「豊饒속의 貧困」현상을 더욱 惡化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産業化의 速度가 빠르고 産業構造의 高度化의 진행이 급속하기 때문에, 비록 大卒者등의 高級人力은 1980年代에는 풍부한 供給이 예상되어도 部門別로 들어가면 實際 專門 必要人力의 不足現象이 나타날 것인 바 高級頭腦의 海外流出은 이러한 문제를 惡化시킬지 모른다.

세째, 高級人力의 海外流出과 관련하여 國內에 남아있는 高級人力의 價値觀의 變化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소위 「精神的 移民 現象」의 문제이다. 仔細한 論議는 本稿의 硏究分野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略한다.

앞으로 國民經濟가 國際化·開放化됨에 따라 海外旅行, 留學등도 보다 권장하여 海外의 先進文物·技術등에 접할 기회를 擴大함으로써 우리나라 高級人力의 國際競爭力을 더욱 提高할 필요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直接移民의 형태 혹은 海外旅行者, 留學者에 의한 現地移民의 形態등으로 高級頭腦의 移動이 一方的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동안 國內에서 들인 社會的 敎育投資費用의 流失이라는 문제는 물론, 上記한 몇가지 否定的 問題들을 惹起시킬 가능성이 크고, 특히 1980年代에 量産이 豫想되는 大卒者의 供給을 國內 勞動市場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때 高學歷者의 海外移住라는 문제가 激化될 위험성이 있다.

이 問題에 대한 對應策으로서는 물론 國內 雇傭機會의 創出이 시급하다 하겠고 동시에 高學歷者의 海外流出의 幅을 줄이기 위해 海外移住者, 現地移住者들에 대하여 敎育水準에 따른 累進的 「敎育投資還收稅制」의 導入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思料된다.

Ⅷ. 要約 및 政策方向

1. 要　　約

가. 敎育에 대한 個人의 需要는 敎育에 대한 投資收益으로부터, 즉, 勞動市場에서 좋은 職場과 高賃金 職場에 就業하고자 하는 需要로부터 誘發된 需要(induced or derived demand)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敎育에 대한 私的 需要가 存在하는 限 政府는 敎育機會의 供給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壓力을

받는다. 그런데 敎育需要의 重要 決定要因의 하나인 敎育投資收益은 곧 敎育을 받음으로써 保障되는 높은 生涯所得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敎育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發生하는 期待生涯所得이 差, 즉 敎育投資收益은 敎育水準別 勞動供給에 대하여 勞動市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크게 左右된다. 特定水準의 敎育을 받은 人力의 供給이 지속적으로 擴大되면 長期的으로는 그의 相對賃金率(期待生涯賃所得의 差)은 縮小의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나, 적어도 短期 내지 中期的으로는 勞動市場은 相對賃金率의 縮小라는 價格調整보다는 採用 및 昇進基準의 上昇이라는 量的 調整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勞動力 需給變化에 適應하게 된다. 예컨대 大卒者의 供給增加가 있을 때 需要擴大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企業主는 採用 및 昇進基準을 높임으로써 종래의 高卒者의 職種에 大卒者를 要求하게 되고 中卒者가 從事하던 職種에 高卒의 資格證을 要求하는 소위 學歷「인플레」現象으로 發展한다. 勞動市場이 이와같이 量的 調整의 「메카니즘」을 가지면 高學歷者의 供給이 持續的으로 增加하여도 學歷別 期待生涯所得의 差, 즉 學歷別 相對賃金率은 크게 變化되지 않기 때문에 敎育投資收益이 낮아지지 않아 高等敎育에 대한 私的 需要는 持續的으로 增大하고 따라서 高學歷者의 供給過剩狀態는 더욱 惡化될 수 있다.

나. 勞動市場이 이와 같이 勞動力 需給調整을 賃金構造의 變化로 흡수하지 못하고 採用 및 昇進基準의 上下方移動으로 對處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大卒者의 大幅的인 供給增大가 있으면, 첫째, 從來 大卒者의 傳統的 就業職種이었던 上位職에 취업하지 못한 大卒者의 下位職移動이 나타나 職種別·學歷別 就業構造가 變化할 것이다. 換言하면, 下位職種에서의 大卒者 構成比의 增加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는 결국 大卒者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을 축소시킬 것이고, 세째, 一般的으로 賃金分布는 「로그 노멀」(log normal) 形態를 취하므로 大卒者의 下位職 移動은 위와 같은 賃金分布에서 보다 集中度(density)가 높은 部分에로의 移動을 의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大卒者內의 賃金不平等度는 낮아질 것이다. 네째, 大卒者 平均賃金/高卒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은 同一職種內의 大卒者 平均賃金/高卒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이 變化해서가 아니라 大卒者의 下方移動과 또한 이에 밀려난 高卒者의 職種下方移動으로 인하여(一般的으로 隣接 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下位職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 隔差는 축소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學歷「인플레」의 경우가 아니라 供給不足으로 인한 學歷「디플레」의 경우에는 같은 論理로 위의 諸指標는 反對의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다. 60年代와 70年代 우리나라의 學歷別 勞動力 需給狀況을 보기 위해 우선 職種別·學歷別 就業者構成 分析結果를 보면 60年代에는 大卒者의 경우 약간의 供給過剩이 있어 5~6人의 大卒者中 1人은 下位職 移動分으로 나타나나, 全般的으로 學歷「인플레」現象은 컸다고 할 수 없는 반면, 中高卒者는 명백히 供給過剩으로 同期間中 供給增加分의 58%가 農業職과 生產職에 就業하지 않을 수 없었고 專門技術職등의 上位職의 中高卒者의 構成比는 低下되었다.

70年代에는 高度成長에 따른 大卒者需要의 急增이 있었으나 供給은 大學定員의 硬直的 運營으로 需要變化에 따르지 못하여 學歷「디플레」現象 즉, 大卒者의 職種上方移動이 심하였다. 그 결과 특히 事務職, 販賣職, 서어비스職, 生産職등에 大卒者比重의 下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同期間中 4年制大卒者의 供給伸張率이 특히 낮았으며 70年代 後半에 들어와 2年制大卒者의 供給增加 趨勢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反面 中高卒者의 경우는 60年代와 거의 마찬가지로 供給過剩에 의한 下位職 移動이 계속됐으며 中高卒者中 中卒者 勞動供給의 伸張率은 上級學校 就學率 提高로 70年代 中半以後에는 오히려 감소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高卒者 勞動供給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이 특기할 만하다. 要約하면 70年代에는 大卒者의 경우 學歷「디플레」(職種上方移動)와 中高卒者의 學歷「인플레」(職種下方移動)가 共存했다 할 수 있다.

70年代 變化를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를 통하여 관찰하면 기대한 대로 全大卒者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은 1972～76年間의 2.26에서 1977～79年間의 2.41로 擴大되어 職種의 上方移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高卒 平均賃金은 1972～74年間의 1.203에서 1977～79年間의 1.117로, 中卒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은 0.78에서 0.74로 各各 縮小되어 이들 中高卒者의 職種下方移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보아도 앞의 勞動市場에 대한 우리의 假說에서 期待한 대로 供給不足이었던 大卒者는 70年代 賃金不平等度가 증가했고, 供給過剩이었던 中高卒者는 賃金不平等度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80年의 敎育改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高學歷者의 大幅的 供給急增이 豫想된다. 卒業豫想者에서 進學豫想者, 經濟活動參加率, 生殘率등을 고려한 후 勞動市場에 新規流入될 勞動力을 1981～91年間 各學歷別로 推定하여 이를 過去 1970～80年間의 實績値와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中卒 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의 117.7萬에서 1981～91年間 64.4萬으로 供給減少가 예상되고, 高卒 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의 168.3萬에서 1981～91年間 290.4萬으로 增加가 예상되며, 4年制大卒 流入勞動力은 27.7萬에서 100萬으로 約3.6倍의 供給增加, 2年制大學과 大學院까지 포함한 高等敎育機關 全體를 보면 1970～80年間의 實績値 48.2萬에서 1981～91年間의 豫想値는 211.1萬으로 約4.4倍의 急增이 豫想된다.

앞으로 豫想되는 勞動需要側 變化를 考慮, 1981～91年間 純需給差를 學歷別로 推定해 보면 中卒 勞動力의 경우는 上級學校 進學率提高등의 要因 때문에 1981～91年間 約89.5萬의 供給不足, 高卒 勞動力의 경우는 同期間中 約78.8萬의 供給超過, 高等敎育機關은 同期間中 約58.2萬의 供給超過를 豫想할 수 있다.

高卒者의 供給超過分은 職種下方移動에 의해 中卒者 不足分을 補充하면 큰 問題가 없을 것이나 1981～91年間 約58.2萬이 超過供給되는 高等敎育機關卒業 勞動力은 그 일부는 自發的이든 非自發的이든 失業을 擇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종래의 高卒者가 就業하고 있던 職種으로 下方移動하여 就業機會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換言하면, 大卒者의「블루 칼라」(bule collar)化 혹은「그레이 칼라」(grey collar)化를 招來할 것이다. 超過供給으로 인한 高等敎育機關 出身者의 下位職 移動率은 1980年代 前半期는 每年 平均 4～5萬, 後半期

에 이르면 6~7萬의 水準이 되리라 보이며, 우선 2年制大學卒業者부터 高卒者 職種에로의 移動이 시작되리라 예상된다.

마. 1980年 敎育改革의 內容을 보면 4年制大卒者는 卒業定員의 130%를 入學시켜 卒業까지 30%를 脫落시키고, 專門大는 卒業定員의 115%를 入學시켜 15%를 탈락시키게 되어 있다. 이는 入學者數를 基準하면 4年制大學은 入學者의 23.1%, 專門大는 入學者의 13%를 中途脫落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過去에도 自然脫落率은 1975~81年間 4年制大學의 경우가 入學者의 13.1%, 專門大의 경우가 14.9%였으므로 專門大의 경우는 별문제 없으나, 4年制의 경우 中途脫落되어야 할 入學者의 23.1% 中 13.1%정도는 자연탈락될 것으로 보아도 入學者의 約10%정도는 强制脫落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4年制大의 1981~86年間 總入學豫定者 131.8萬名中 約30.4萬名이 中途脫落해야 하고 이 中 17.3萬名은 自然脫落分이라 하여도 約13.1萬名은 卒業定員制의 導入으로 인해 强制脫落돼야 함을 의미한다. 自然脫落이든 强制脫落이든 中途脫落돼야 할 人員은 1981~86年間 入學者中에서 4年制, 2年制 合하여 約41萬名線에 이른다.

이들 中途脫落者들은 雇傭市場에서나 賃金市場에서 大卒者에 비해 심한 不利益을 받고 있다. 專門技術職, 行政理職등의 上位職 就業이 어려울 뿐 아니라 賃金面에서도 高卒者를 100으로 볼 때 大卒者가 169인 반면, 大退者는 118에 불과하여 大退者는 高卒者와 大卒者間의 賃金隔差의 約26.5%만을 高卒者보다 많이 받는 셈이다. 이와 같이 勞動市場에서 中途脫落者가 받는 不利益 때문에 中途脫落者를 制度的으로 量産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費用이 발생하는 바 그中 오직 經濟的 費用만을 槪算하여 보는 경우,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를 10%로 낮게 잡아도, 1981~86年間 入學者中 4年制大 中途脫落 豫定者 30.4萬名으로 인해 발생하는 經濟的 損失은 約4,621億원이나 되고, 自然脫落 豫想分을 빼고 强制脫落者만을 잡아도 約1,991億원의 社會的 費用(GNP 損失)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바. 高學歷者의 供給急增과 더불어 80年代에 예상되는 또다른 問題는, 國內的으로는 地域間 勞動移動 즉, 離農向都現象이 進展되고 國際的으로는 高學歷者·高級人力의 海外流出이 激化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勞動移動은 高學歷者일 수록 移動性向이 높기 때문에 勞動力 全般의 學歷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이들의 移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高學歷者의 海外移住는 高學歷供給이 國內 勞動市場의 吸收力을 넘어서 激化될수록 크게 增加할 것이다.

高級頭腦의 海外流出은 우선 그동안 國內에서 행했던 社會的 敎育投資의 損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는 바, 過去 10年間(1971~80年) 公式集計된 33萬7千名의 海外移住者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社會的 敎育投資 損失分은, 國民學校 과정의 교육투자를 공제하고 中學 以上만을 計上하여도, 1980年 價格 基準으로 約2兆 6千億에 달한다. 同時에 高學歷 人力의 海外流出이 增大되면 海外移住를 前提로 한 敎育熱, 高等敎育에 대한 需要增大를 유발할 수도 있고,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特定分野에 나타나고 있는 專門 高級人力의 不足問題를 深化시킬지도 모른다.

사. 끝으로 指摘되어야 할 문제점은 이미 量産體制로 들어간 高等敎育機關의 質低下의 문제이다. 敎授要員의 質的·量的 確保나 必要敎育施設 確保가 어려울 것이며, 現在와 같은 硬直的인 定員管理制度 및 彈力性 없는 敎科課程·敎科內容下에서는 急變하는 産業社會의 需要變化에 잘 對處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敎育의 質低下問題는 우리나라의 敎育과 勞動市場間의 連繫性 不足이라는 旣存의 問題를 더욱 惡化 시킬 것이다. 量的으로는 高等敎育機關 卒業者의 一般的 供給過剩이 豫想되지만 質的인 面에서는 80年代에 豫想되는 産業構造의 高度化, 急速한 技術革新, 海外競爭의 激化등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수 있는 高級 技術·技能人力과 高級 專門行政經營人들은 여전히 不足하게 될 것 같다.

2. 政策方向

가. 우선 勞動需要面에서 볼 때 80年代의 經濟開發計劃에서는 雇傭의 極大化를 第1次 目標로 삼아야 한다. 우리 經濟는 向後 10年間 年平均 40~50萬의 새로운 職場을 提供하여야 하고 非農林漁業部門에서만도 約35萬의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어야 現在의 失業率水準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失業率에는 잘 잡히지 않으나 적지 않은 人力이 特히 도시의 第3次 産業部門에 半雇傭 내지 半失業狀況에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年5~6萬의 超過供給되는 大卒者가 종래의 大卒者의 傳統的 職種에 就業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특히 80年代 豫想되는 高學歷者의 供給過剩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現在의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의 大學의 入學 및 卒業定員水準을 축소조정해 나가거나 적어도 86年 以後에는 現 定員水準以上의 定員增大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長期的이고 根源的으로는 高等敎育에 대한 一般國民의 私的 需要를 國民經濟의 雇傭創出能力을 감안한 社會的 適正水準으로 낮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高等敎育費用을 높이는 方向과 高等敎育收益을 낮추는 方向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敎育에 對한 政府의 支援幅이 外國에 비해 낮고, 費用의 大部分을 학부모들이 負擔하고 있으며 그 水準이 80年 現在 大學生 1人의 학부모부담교육비가 이미 도시 봉급생활자 가구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敎育費를 높이는 政策方向을 생각할 수 없다.

다. 결국 敎育投資收益을 낮추어 高等敎育에 대한 過剩需要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바, 첫째, 우리나라의 雇傭과 賃金構造面에 나타나는 身分的 差別에 가까운 정도의 學歷主義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선 公務員·國營企業·大企業體부터 始作하여 採用基準에서부터 昇進·昇給 및 敎育訓練에 이르는 勞務人事政策에서 學歷主義는 成果와 能力本位의 實力主義·能力主義로 代替되어야 한다. 둘째, 現行의 賃金體系속에 있는 學歷爲主의 屬人給的 賃金貫行은 業務의 性格·難易度·成就度 등에 따라 賃金水準을 決定하는 職務給·成果給的인 賃金慣行으로 移行되어야 하며 이 過程에서 기존의 學歷別 賃金隔差는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賃金慣行의 變化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 職務分析 및 評價制度의 改善普及이 있어

야 한다. 세째, 이와 關聯하여 企業안에서 學歷에 관계없이, 作業·實務經驗을 통하여 必要한 産業技術과 知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制度化되어야하고 低學歷者도 이를 통하여 技術과 知識을 습득하면 그 습득정도를 客觀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 資格證制度가 各 技術別, 分野別(販賣·서비스分野까지)로 多樣하게 開發·擴大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은 慣行의 修正·制度의 改善을 위해 政府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인 기능이 크게 要求되며 필요시 私企業에 대한 財政·金融上의 誘因도 제공되어야 身分的 差別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나라의 學歷主義는 改善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看板爲主」의 高學歷에 대한 過度한 私的 敎育需要를 낮추어 長期的으로는 高學歷者의 過剩供給 趨勢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利點뿐 아니라 앞으로 國際競爭이 더욱 격화되는 80年代에 있어 종전의 賃金 및 雇傭慣行속에 있는 非合理的인 요소들을 改善하여 合理化한다면 生産性과 費用面에서 우리 經濟의 國際競爭力을 크게 提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利點도 있다 하겠다. 特히 學歷主義로부터 能力·成果主義로의 改善은 그동안 行政管理職·事務職에 종사하는 勞動力의 生産性向上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마. 現在 入學定員의 約23%(卒業定員의 30%)가 學業中 强制脫落되어야 하는 바, 中途脫落者의 문제는 基本的으로 政策的 再考가 요청된다. 中途脫落者가 量産되어 생기는 政治的·社會的 費用은 물론이고, 순수히 經濟的 損失만을 槪算하여도 대단히 크다는 점을 이미 本論에서 밝혔다. 大學의 定員管理는 처음부터 勞動市場의 需要變化側面을 充分히 감안하여 彈力的으로 決定하고 一旦 入學한 人力은 中途脫落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個人은 물론 國民經濟的 觀點에서도 利益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大卒者의 過剩供給이 豫想되면 入學定員을 낮추어 對處하여야 하고 入學定員과 卒業定員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 高學歷의 增大에 따른 高級人力의 海外流出問題는 國民經濟의 開放化·國際化추세와 관련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人口增加壓力의 面도 있기 때문에 海外移民·就業을 적극 권장해야할 사정도 있다. 다만 海外移住者의 學歷構成이 高學歷者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 高學歷者의 一方的 海外流出이 지속적으로 擴大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政策方向은 國民一般의 海外移住·海外就業 등은 적극 권장하되 海外永久移住者의 경우 學歷水準別로 「敎育投資還收稅」를 附加하여 그동안 이들에 대한 社會的 敎育投資費用의 一部만이라도 回收하여 低所得層의 장학사업 등에 活用, 國內人力의 高級化를 提高시키는 方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고있다 하겠다.

사. 高學歷者의 大量生産에 따라 수반되는 高等敎育의 質低下問題와 그 結果로 더욱 深化될 敎育과 勞動市場의 連繫性 不足問題가 앞으로 激化되는 國際競爭속에서 高生産性, 高賃金時代로 들어가는 80年代 우리 經濟가 當面할 가장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對處하기 위해

첫째, 高等敎育機關의 敎科課程, 敎科內容의 決定, 新設學科의 설치여부, 學科別 定員管理 등에서부터 學事行政 一般에 이르기까지의 諸問題를 경직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해 오

던 종전의 文敎政策을 보다 自律性과 彈力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둘째, 同時에 勞動市場의 情報가 보다 組織的이고 迅速하게 高等敎育機關에 전달될 수 있는 情報傳達體係가 確立되어 現代產業社會의 急變하는 技術 및 管理體係의 變化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高等敎育機關의 敎育內容속에 反映, 吸收되도록 해야 한다.

세째, 反面에 企業은 必要한 專門技能人力과 專門經營管理人力을 종전과 같이 高等敎育機關에만 의존하려는 安易한 勞務·人力政策의 前近代性을 탈피하여야 한다. 社內訓練 및 敎育의 强化, 勤續의 長期化 誘導 등을 통해 必要專門人力을 社內에서 自體的으로 育成 調選하려는 努力이 절대 必要하다.

네째, 위와 같은 方向으로의 政策摸索을 위한 하나의 制度的 裝置로서 勞動部, 科技處, 文敎部가 共同으로 常設「人力開發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人力需給 및 活用狀況의 수시 점검, 中·短期 人力의 需給計劃의 공동작성 및 집행, 그리고 微視的으로는 產學協同을 위한 現場敎育强化, 公共敎育機關과 社內敎育訓練機關의 優秀敎員確保, 卒業後 進路, 就業指導强化, 產業 및 勞動市場構造變化에 따른 현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의 改善, 職業訓練 및 職業安全網 擴大 등등, 人力開發과 效率的 人力活用을 위해 硏究 改善되어야 할 諸問題들을 보다 有機的으로 검토, 종합적인 對策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敎育과 勞動市場의 連繫性을 大幅 强化하여 人力의 보다 效率的인 開發, 配分, 活用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人力問題의 最大難題인 소위「豊饒속의 貧困」이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具本英, 「韓國의 潛在價格係數推定」, 『韓國開發硏究』, 第3卷 第2號, 韓國開發硏究院.

朴世逸, 「우리나라敎育投資收益率分析」, 『韓國開發硏究』, 第4卷 第3號, 韓國開發硏究院.

朴烜求, 「職種別 人力需給展望과 對策」, 『韓國開發硏究』 第3卷 第2號, 韓國開發硏究院.

洪思媛·金思憲, 『韓國海外移民硏究』, 硏究·調査報告 第79-03卷, 韓國開發硏究院.

Koo, Sung-Yeal, *A Demographic-Economic Model for Korea: Long-term Demographic Prospect and policy Impacts*, Working Paper 8201, KDI, 1982.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DI, 1979.

〈附表 1〉 學歷別 卒業者 및 新規流入勞動力 推定方法

(1) 卒業者數

우선 1982~86年間은 文敎部 第5次5個年經濟社會開發計劃을 토대로 하였다.

1987~91年間의 推定은 다음과 같다.

中卒者=(15세 人口)×(15세 人口對比 中卒率)

高卒者=(18세 人口)×高卒率

高卒率=(人口對比 中卒率)×(高等學校 進學率)×(1-中退率)

2年制卒業者=(1988年 졸업정원에서 每年 5千名씩 증가)+(敎大 5.5千)

大學院卒業者=81年以後 每年 2~4千名씩 증가

(2) 新規流入勞動力

流入勞動力人口=潛在勞動力人口×經濟活動參加率×生殘率에서

潛在勞動力人口의 推定은 다음과 같다.

中卒勞動力=中卒者×(1-進學率)

高卒勞動力=高卒者-(高等敎育機關 入學定員)×(1-再修率)

2年制勞動力=2年制卒業者

4年制勞動力=4年制卒業者×(1-進學率)

大學院勞動力=大學院卒業者

여기에서의 經濟活動參加率은 朴世逸(1982)의 〈附表 1〉의 經濟活動參加率의 10年間 男女平均値를 적용하였고, 生殘率은 1980年 人口센서스의 死亡率의 10年間 平均値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年齡別 人口推計는 具成烈(1982)推計를 使用하였다.

〈附表 2〉 敎育程度別 勞動力의 需給豫想 推定方法

우선, 供給純增加豫想分=(1981~91年間 各學歷別 新規勞動力 合計)-(1980年 以前의 各學歷別 勞動力人口「스톡」)×(1991年까지의 生殘率)의 式에서 구하였고,

需要純增加豫想分(Ⅰ)은 1980年 學歷別 構成比를 不變이라고 가정하고 1991年의 各 學歷別 需要를 推定하고, 여기서 80年의 旣存 需要를「마이너스」하여 구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附表 2-1〉에 수록하였다.

需要純增加豫想分(Ⅱ)은 1966年, 70年, 75年, 80年의 職種別 學歷別 構成比를 單純回歸分析 推定에 의해 1991年의 構成比를 구하고, 그다음은 方法(Ⅰ)과 마찬가지로 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附表 2-2〉에 수록하였다.

〈附表 2-1〉 1980年 學歷別 比率不變時 1991年 需要豫想分

(단위 : 千名)

	1980年 計 A	1991年 計 B	1980 中卒數 C	1980 中卒比率 C/A	1991 比率不變時 中卒數 B·C/A	1980 高卒數 D	1980 高卒比率 D/A	1991 比率不變時 高卒數 B·D/A
專門技術	580.9	1,433	28.5	4.9	70.2	125.7	21.6	309.5
管理行政	133.6	365	11.3	8.5	31.0	34.6	25.9	94.5
事務	1,203.2	2,480	112.6	9.4	233.1	703.5	58.5	1,450.8
販賣	1,531.1	2,693	372.7	24.3	654.4	448.6	29.3	789.0
서비스	894.6	1,785	246.4	27.5	490.9	209.2	23.4	417.7
農業	4,768.4	3,737	587.5	12.3	459.7	309.3	6.5	242.9
生産	3,569.7	6,240	1,232.6	34.5	2,152.8	806.1	22.6	1,410.2
計	12,682.4	18,733	2,591.8	21.8	4,092.1	2,637.0	20.7	4,714.6

	1980 2年制 卒數 E	1980 2年制 比率 E/A	1991 比率不變時 2년制數 B·E/A	1980 4年制 卒數 F	1980 4年制 比率 F/A	1991 比率不變時 4年制數 B·F/A	1980 大學以上 數 G	1980 大學以上 比率 G/A	1991 比率不變時 大學以上數 B·G/A
專門技術	89.7	15.4	220.7	305.4	52.6	753.8	395.1	68.0	974.5
管理行政	2.7	2.0	7.3	71.4	53.4	197.1	74.1	55.4	204.4
事務	29.7	2.5	62.0	253.8	21.1	523.3	283.5	23.6	585.3
販賣	12.1	0.8	21.5	93.6	6.1	164.3	105.7	6.9	185.8
서비스	5.6	0.6	10.7	26.9	3.0	53.6	32.5	3.6	64.3
農業	7.5	0.2	7.5	17.7	0.4	15.0	25.2	0.6	22.5
生産	19.1	0.5	31.2	60.9	1.7	106.1	80.0	2.2	137.3
計	166.4	1.3	360.9	829.7	6.5	1,813.2	996.1	7.8	2,174.1

〈附表 2-2〉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數

(단위 : 千名)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의 比率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 數
84.9	1,216.6
68.3	249.3
20.4	505.9
9.7	261.2
4.4	78.5
0.6	22.4
2.8	174.7
	計 2,508.6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各年度.